

#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 (백) 주님 성탄 대축일



전담신부 : 진윤기 토마스 아퀴나스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어린이 전례 : 주일 오후 3시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19:00, 온라인(Zoom)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 [ 교황님 기도지향 - 12 월 ]



**복음화 지향 : 비영리 자원봉사 기관들**  
 인간 발전에 헌신하는 비영리 자원봉사 기관들이 공동선에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을 찾고 국제적 차원에서 새로운 협력의 길을 끊임없이 모색하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전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이 세상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은 이가 되셨습니다. 이 놀라운 강생의 신비로 우리에게 지극한 사랑을 보여 주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오늘을 경축합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52,7-10  
 <땅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화답송** 시편 98(97),1,2-3 7 ㄴ .3 ㄷ ㄹ -4,5-6 (◎ 3 ㄷ ㄹ)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제2독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1,1-6  
 <하느님께서서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환호송** 마태 1,23  
 ◎ 알렐루야.  
 ○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네. 민족들아, 어서 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  
 ◎ 알렐루야.

**복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18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영성체송** 시편 98(97),3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영성체 후 묵상**  
 믿는 이들은 사람이 되신 말씀을 통하여 참된 영광을 보고 은총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은 사람이 되시어 오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어둠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성체 안에서 참된 영광을 바라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경축하며 성체 안에 담긴 그분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 오늘의 복음 묵상 - 안봉환 스테파노 신부 ♣

하느님의 자녀들

낮 미사는 말씀이 사람이 되신 강생의 신비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해 줍니다. 오늘 제 1 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주님께서 시온에 오신다고 전합니다. "예루살렘의 폐허들아, 다 함께 기뻐하며 환성을 올려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셨다."

참으로 주님 성탄 대축일은 모든 이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전합니다. 하느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당신 아드님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를 위한 심오한 사랑을 보여 주십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됩니다. 이 작은 고을에 감추어졌던 사건, 곧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든 민족들은 하느님의 구원을 볼 것입니다.

제 2 독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의 위대함, 곧 그 아이가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깨닫게 해 줍니다. 하느님께서 옛날처럼 당신 종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 아드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드님께서 우리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 탁월한 방식으로 당신 현존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과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느님 본질의 모상" 이시고 참으로 하느님의 만아드님으로서 하느님과 유일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복음에서는 영원으로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신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셨음을 들려줍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 생명을 위한 빛입니다.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 머무르고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 빛을 드러내시고 당신 생명을 전하시고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 주님 성탄 대축일 복음 필사 !

내 마음의 성경  
한구절



'목동들의 경배', 안 데 브레이 작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요한 1,14).

.....  
.....  
.....  
.....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성가정 축일’ 유래와 전례, 의미**

다가오는 12 월 30 일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성가정은 예수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양부인 요셉으로 구성된 나자렛의 가정을 일컫는 용어로 오래 전부터 가톨릭 신자들의 신심 대상이었습니다. 성가정 축일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선 성자인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자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루가 2, 51)라는 복음의 내용에 근거할 때, 예수는 친히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면서 이상적인 그리스도교 가정의 모범이 되는 탁월한 가정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나자렛의 성가정은 하느님 나라를 향한 개방성과 이웃을 위한 연대적인 삶 안에서만 참 가치가 확인되는 하느님을 체험하는 친교의 현장으로서 거룩한 가정입니다. 또한 이 성가정은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 가정의 원형이요 모범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나자렛 성가정을 특별히 기억하고 그 모범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 성가정 축일을 제정했습니다. 가정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며 인간다움을 구현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는 장입니다. 교회는 이 축일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더 나아가 나자렛 성가정의 모범을 따라 모든 가정이 하느님 사랑과 구원으로 협력할 것을 강조합니다.

**2022 년 가정 성화 주간 담화**

이성호 주교님은 담화문을 통해 교회는 가정 성화 주간에 가정의 소명을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딛도록 초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6 월 ‘가정의 사랑: 성덕의 소명이자 길’이라는 주제로 로마에서 열린 제 10 차 세계 가정 대회 개막식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다섯 가지의 ‘한 걸음 더’를 언급하시면서 이를 모든 가정에서 함께 실천하자고 제안을 하신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섯 가지는 **혼인을 향한 ‘한 걸음 더’, 십자가를 끌어안기 위한 ‘한 걸음 더’, 용서를 향한 ‘한 걸음 더’, 환대를 향한 ‘한 걸음 더’** 마지막으로 **형제애를 향한 ‘한 걸음 더’**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젊은이들이 마주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은 이들이 혼인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주저하거나 좌절하게 만들며 그들이 둘러싼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서 느끼는 상대적 ‘나약함’ 때문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약함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처지라고도 강조하셨습니다. 나약함은 힘이 없다는 부정적 의미만을 가지지 않고 타인의 안녕을 위하여 자신의 미약한 힘을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되며 신앙으로 바라본 나약함은 인간과 가정이 하느님께 받은 근본적인 소명을 일깨운다고 하셨습니다. 나자렛 성가정 또한 온갖 위험에 노출된 나약한 가정이었으며 시련에 주저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으니 모든 가정들이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촉구하셨습니다.

담화문 전문: <https://cbck.or.kr/Notice/20221182?gb=K1200>

**성탄 자선 헌금 (Christmas Appeal)**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시기, 교회는 신자들에게 자선과 단식을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일에 초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상이 겪었던 고통과 빈곤을 떠올리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일에 함께 동참합니다. 성탄 자선 헌금은 캔버라교구를 통해 1) 우크라이나, 시리아, 스리랑카, 짐바브웨, 케냐 전쟁 난민들을 지원하며 2)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아시아의 낙후된 지역의 복지단체 및 교구, 3) 파퓰어뉴기니 세인트 요셉 대학교 3) 인도 La Salette Matha 지역 가난한 이들과 홀리랜드 베들레헴 대학교를 지원합니다.

\*\*12 월 25 일 봉헌금은 성탄 자선 헌금으로 보내집니다.

**대림시기 우크라이나 성금**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특별 성금에 많은 교우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성전입구에 준비된 성금봉투를 **12 월 25 일 까지** 교무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당 계좌로 **온라인 송금 시 ‘Ukraine’**라고 꼭 기입해주시시오)





| 주님 성탄 대축일 주간실천 |

**피조를 보호를 위한 507가지 손쉬운 방법**

집안 청소를 위해 손걸레를 만들어 쓰기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발자국 줄이기**

하루 5분, 신호대기 시 기어를 중립으로 놓기  
→ 1.08kg의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미카엘 TV

가정 성화를 위한 기도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가정 성화를 위한 기도 영상

성경과의 해주는 신부

[가톨릭성경통독 18강]  
광야 40년은 불신에 대한 징벌?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민수기 입문

CPBC 뉴스

시노드 교회, 왜 대중 신심인가?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시노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보시고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주일 미사 참례자수

12월 11일	성인 35 아이 8	12월 18일	성인 38 아이 10
---------	------------	---------	-------------

□ 우리들의 정성 (12월 17일(토)~12월 23일(금))

구민식	김요한	남궁영근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지영	장호훈
전인철	주정자						
교무금 \$460 (10 가정), 봉헌금 \$180 / 우크라이나 성금 \$70 (현재 총 모금액 \$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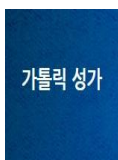
※ 교무금 온라인 납부/공동체 계좌 정보 (Reference: 납부자 이름 반드시 기재)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062786 / Account Number: 000027424

□ 봉사자 안내

- 독서: (12월 25일, 주님 성탄 대축일) 주정자 루치아, 이민정 글라라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세계 평화의 날)) 이상명 다니엘, 이명진 이사악
- 미사 후 성당 뒷정리: (25일) 마태오반 → (1월 1일) 요한반 → (1월 8일) 루카반 → (1월 15일) 마르코반
- 미사 후 다과·친교(매 2주 1회, 매월 첫째주 식사): (25일) 공동체 식사 → (1월 1일) 공동체 식사
- ※ [어린이 안전 규정] 성당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보호자의 보호와 지도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 ☺ 교우 영명 축일: 12월 25일 강선모 (마르코), 전인철 임마누엘 (요한), 12월 26일 김기식, 최재원 (마태오), 김남호 (마르코), 오현우, 황양훈 스테파노 (루카), 12월 27일 고준호 사도요한 (마르코)

♡ 미사 성가 안내 (1월 1일)  
천주의 성모 대축일 미사)  
입당 237번, 예물 221번,  
영성체 165번, 파견 236번



♡ 가정 성화를 위한 기도

[https://m.mariasarang.net/book/bbs\\_view.asp?index=bbs\\_gido1&page=1&no=155&curRef=155&curStep=0&curLevel=0&col=2&sort=3](https://m.mariasarang.net/book/bbs_view.asp?index=bbs_gido1&page=1&no=155&curRef=155&curStep=0&curLevel=0&col=2&sort=3)

